



Return to

101

제18회 서울국제 건축영화제

The 18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보도자료집

DATE

2026.9.5 ~ 20

VANUE

아트하우스 모모
네이버TV

CONTENT

- 2** 영화제 개요
- 3** 공식 포스터
- 4** 프로그래머 노트
- 5** 상영작 소개
- 14** 부대행사
게스트 토크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https://siaff.or.kr/>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

 @서울국제건축영화제

 @siaff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he 18th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주제 101(one-o-one)

성격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 비경쟁영화제

기간 2026. 9. 5(토)~9. 20(일), 16일간

장소 아트하우스 모모, 네이버 TV

극장 상영 기간 : 2026. 9. 5(토) ~ 9. 6(일), 2일간
장소 : 아트하우스 모모

온라인 상영 기간 : 2026. 9. 6(일) ~ 9. 20(일), 15일간
장소 : 네이버TV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채널

부대 행사 게스트 토크(Guest Talk)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ost Architect Forum)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슬로건 '101'이 지닌 기초와 출발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절제된 구성과 최소한의 시각 요소를 통해 건축의 구조와 질서를 강조했으며, 건축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방향성을 담아냈다.

2009년 건축과 영화의 만남을 모색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던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아시아 유일의 공식 건축영화제라는 정체성을 쌓아오며, 건축의 대중화는 물론 영화계 저변 확장에도 기여해 온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성취했고,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올해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 18회까지 이어온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왔다.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해외 작품들을 소개하며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유한 섹션들을 만들어 정착시키고, 건축과 건축 환경을 더 확장된 시선으로 탐구하며 상영작 수를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토크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극장을 벗어난 상영 공간과 여러 관객 이벤트를 기획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올해 영화제는 그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건축의 본질과 건축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양적인 성장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에 더 집중한다. 이에 따라 섹션 구분 없이 예년 보다 적은 수의 작품을 선보이되, 건축의 본질과 가치를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들을 신중히 엄선했다. 관객과 만난다.

알프스와 같은 깊은 산지, 남극, 그리고 우주와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축의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건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토 도요오, 니시자와류에, 야마모토 리켄, 구마 겐고를 비롯한 일본의 저명한 건축사들과 장웅허, 그리고 작년에 타계한 프랭크 게리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는가? 브라질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건축의 정치 사회적 본질은 무엇인가? 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결코 진지하거나 무겁지 않다. 건축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자, 누구나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이며 동시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임을 싱가포르, 한국, 미국에서, 그리고 수작업으로 완성한 영화 세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영작들과 건축적, 영화적 여정을 함께하는 관객들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세계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오직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며,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들이다. 앞으로도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그 고유한 역할을 더 치열히 고민할 것이다.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규모

12개국 14편

장편 7편, 중단편 7편

월드 프리미어 2편, 아시아 프리미어 3편, 코리아 프리미어 6편

프로세스 : 진화하는 공공건축,
구마모토
PROCESS : The Evolving
DNA of a City, Kumamoto

Korea | 2026 | 28' | color | G |
World Premiere
Dir. 김수동 Kim Soodong



1988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의 38년 유산을 통해 공공건축이 어떻게 도시의 유전자를 진화시키는지 이야기하는 작품.
영화는 KAP 프로젝트의 커미셔너인 이토 도요오를 비롯한 거장 건축사들의 육성과 함께 야마모토 리켄의 집합주택, 오타 히로시의 다카모리역 등 구마모토 곳곳에 살아 숨 쉬는 건축의 궤적을 따라간다.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건축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선순환 속에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를 넘어 시민의 삶에 스며든다.

세계의 끝에서 건축
Building on the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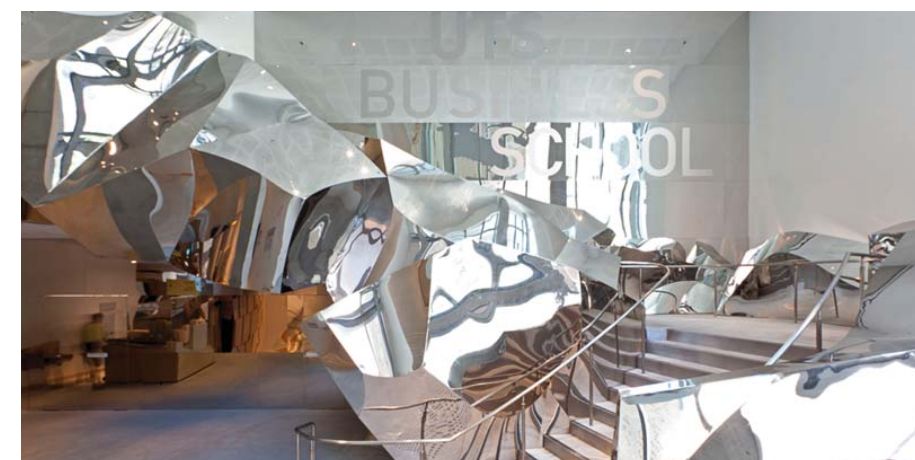
USA | 2025 | 73' | color | G | Asian
Premiere
Dir. 브루스 보로스키
Bruce Borowsky
마이크 스칼리시
Mike Scalisi



건축학과 학생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 남극에 연구 기지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장대한 모험에 나선다.

프랭크 게리를 이해한다는 것
Getting Frank Gehry

Australia | 2015 | 59' | color | 12
Dir. 샬리 앳킨 Sally Aitken



논쟁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한 세계 최고의 건축사 프랭크 게리가 호주에서의 첫 작업을 완공한다. 시드니 최초의 경영대학원 건물인 시드니 공과대학교 경영대학원이다. 하지만 이 건물이 흉물인지 아이콘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영화는 이 프로젝트에서 프랭크 게리의 비전이 실현되어 가는 드라마를 따라가는 한편, 그 건설 과정에서 그의 도전적인 40년 건축 여정을 함께 조명한다.

그랑다르슈의 이름 없는 남자 The Great Arch

France, Denmark | 2025 | 106' |
color | 15 |
Dir. 스테판 드무스티에
Stéphane Demoustier



1983년,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은 임기를 대표할 상징적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 건축 공모를 결정한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으로 이어지는 축에 세워질 라데팡스의 '그랑다르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덴마크 건축사 오토 폰 슈프레켈센이 이 공모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프랑스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53세의 이 남자는 하루아침에 파리로 건너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다. 자신이 구상한 그대로 그랑다르슈를 완성하려 했던 그의 이상은, 곧 현실적인 제약과 정치적 변동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장융허, 손끝으로 만난 세계 In Love with the Tangible World

China | 2025 | 30'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리지아 Jia Li



2025년 5월, 장융허는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60개의 건축 사례 연구를 담은 책, 『어린이를 위한 건축』을 집필하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 보았던 고전적인 건물들을 다시 찾고, 흥미로운 새 건물들을 탐구하며,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왜 스웨덴인가. 그것은 장융허가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 즉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이 북유럽의 일상적인 건축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메트로폴리탄 라이드 Metropolitan Ride

Korea | 2026 | 30' | color | G |
Dir. 김준영 Kim Junyong



높은 취업의 문턱을 뚫고 마침내 취업에 성공한 수빈은 첫 출근길에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엘리베이터에 탄다. 하지만 가야 하는 7,891층까지는 아직 수빈 앞에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산의 시간: 알프스의 열 가지 건축 Mountain Time. Alpine Architecture in Ten Stories

Italy | 2026 | 54' | color | G | Asian
Premiere
Dir. 다비데 포이스, Davide Fois
프란체스카 몰테니
Francesca Molteni



이탈리아 알프스산맥을 따라 펼쳐지는 여정을 담은 작품으로, 열 곳의 지역과 열 개의 현대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산악 지역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탐색한다. 학교, 복원된 마을, 기반 시설, 재생 공간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담아낸 모범 사례들을 조명한다.

프레임 밖의 건축사 Out of the Picture

Belgium, France | 2025 | 90' |
color, b&w | G |
Asian Premiere
Dir. 앙 아슈 스몰라르
An. Ash Smolar



여성 건축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여성들은 수 세기 동안 열정과 재능으로 건축을 일구어왔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잊은 것일까, 아니면 남성 중심의 업계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일까? 영화는 잊힌 여성 건축사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그들의 역사와 시선을 되짚는다. 나아가 여성들이 어떻게, 왜 건축계의 영예로운 자리에서 밀려나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조명받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작은 것들의 춤: 구마 겐고 particle dance

Japan | 2025 | 145'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오카 히로모토
Hiromoto Oka



© 2025 Hiromoto OKA / NPO SHONAN YUEIZA

일본의 저명한 건축사 구마 겐고의 15년에 걸친 여정을 담아낸 작품. 구마 겐고의 건축은 입자처럼 작은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목재를 비롯한 자연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화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의 건축 철학과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관객에게 전한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오카 히로모토 감독은 카메라 한 대만 들고서 대학 시절 스승이었던 구마 겐고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80여 개 프로젝트와 그 창작 과정을 기록했다.

프리클리 마운틴, 나의 디자인 빌드 인생 Prickly Mountain and My Design Build Life

USA, New Zealand | 2025 | 96'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엘리 루드 Allie Rood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큰 포부와 소박한 계획을 품은 건축사들이 버몬트에 모여들었다. 더 이상 건물을 설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직접 짓기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바우하우스의 이상을 계승하면서도 학문적 경직성을 거부한 이들은 손으로 직접 건물을 짓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건축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실험으로 탈바꿈시켰다. 감독 엘리 루드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자랐다. 세월이 흐른 뒤 카메라를 들고 그 실천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한 그녀는, 결국 자신만의 집을 지으며 다시 그 정신에 이끌려 들어간다.

스페이스 아키텍트 The Space Architect

USA | 2025 | 40'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레베카 카펜터
Rebecca Carpenter



선구적인 건축사 콘스턴스 애덤스는 NASA에서의 혁신적인 작업을 통해 인간이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새롭게 상상했고, 그 모든 작업은 언제나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53세의 나이에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감독 레베카 카펜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애덤스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나흘 전에 촬영된 이 작품은 그녀의 비범한 경력을 되짚는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구를 향한 열정으로 기후 위기라는 시급한 문제에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고자 했던 모습을 담아낸다.

더 스튜디오: 바퀴 위 공간에서, 땅 위의 공간으로 The Studio

Korea | 2026 | 70' | color | G |
World Premiere
Dir. 정다운 Jung Da Woon



이동 수단의 공간을 넘어, 지상의 공간을 통해 비전을 또 다른 경험으로 구현해 온 현대자동차의 지난 10년간 건축 프로젝트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공간이 위치한 세계 각 도시의 환경과 지역 커뮤니티, 맥락에 맞춰 새롭게 시도된 6개의 모터스튜디오를 통해 공간이 가진 진정한 힘을 탐색한다. 영화는 각 공간이 품은 독특한 지역성과 예술성,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어떻게 도시 환경과 상생하며 일상에 역동성을 불어넣는지 보여준다.

섬머 아일랜드 Summer Island

Singapore | 2026 | 27' | color | G |
Korean Premiere
Dir. 케빈 시유안 Kevin Siyuan



싱가포르에 사는 일본인 유스케는 아내가 출장 간 사이, 다섯 살 딸 엠마와 함께 도시 탐험에 나선다. 단순한 나들이로 시작된 여정은 건축과 예술, 사람들과의 교감을 거치며 싱가포르의 변화하는 도시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3 일간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브라질이 모던했던 시간 When Brazil Was Modern

Brazil | 2025 | 93' | color, b&w | 12 |
Korean Premiere
Dir. 파비아누 마시엘
Fabiano Maciel



20세기 가장 혁신적인 흐름 중 하나였던 브라질 건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 건축사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한때 건축 양식을 선택하는 일은 곧 국가의 미래 비전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1930년대 리우데자네이루 교육보건부 청사 건설로 시작되어 1960년 브라질리아 건설에서 절정에 달했던 논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모더니즘 건축의 콘크리트는 브라질에서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정치권력 투쟁을 담고 있다.

게스트 토크

Guest Talk



감독뿐 아니라 건축과 영화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객이 영화를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 등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약 5회 진행)

일시 2026. 9. 5(토) ~ 9. 6(일)

장소 아트하우스 모모
*진행되는 상영작은 추후 별도 공개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Host Architect Forum

국내 건축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축사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의성 있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고 관객과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

일시 2026. 9. 5.(토) 14: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주제 스테이(Stay) — 여정의 배경이 아니라 목적지가 된 공간

기획 및 진행



심 영 규

(주)프로젝트데이 건축PD
어반플레이 이사

패 널



이 호 상

간삼건축 호텔&리조트그룹장

패 널



노 경 록

지랩(Z_Lab) 공동대표

패 널



김 석 훈

스튜디오 익센트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문의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무국
E siaff2026@gmail.com